

社說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기준

포천시는 매년 50여개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보조금은 사회단체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1년 예산이 6억원에 이른다. 2002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천사회가 이들 사회단체의 활성화에 따른 분위기가 2배 이상 업그레이드된 흔적은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지원금액이 적어서 인가? 아니면 엉뚱한 곳에 지원해서인가? 과연 이들 사회단체에 보조금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이것이 명확하지 않다.

이들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100만원에서 7천500만원까지 매우 다양하다. 단체 회원 숫자에 기준하여 지원하는지 아니면 역사가 오래된 단체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인지가 적절히 분별하지 않다. 말하자면 고루를 지원한다.

어떤 단체는 인건비도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어떤 단체는 인건비는커녕 사업비도 제대로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여론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중구난방식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체계를 바꾸어야 한다. 이제는 체계적인 지원기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래서 일관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관련단체에 지원되는 많은 금액에 대한 정산처리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는 감사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이다. 지난해에도 그 단체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그 단체장이 임의로 사용했다는 제보를 접수한 적이 있었다.

어떤 이는 혹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용으로 많은 단체에 나눠 먹기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닌지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한다. 이같은 의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포천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이 예산이 포천사회를 좀더 발전적으로 성장시키는데 사용되도록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참고하여 보조금지급 기준을 정해야 할 것이다.

첫째, 사회단체의 구체적인 사업과 역할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사회단체의 활동이 신민이나 방송에 보도된 사례를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사회단체 스스로 회비 등 기본적인 사업추진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단체에 지원해야 한다. 유명무실한 사회단체가 존재해서는 안된다. 사회단체 스스로 회원들에 의한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이 확보되지 않은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서는 안된다.

셋째, 모든 보조금은 사업비에만 지원해야 한다.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비 등 경성비 지원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넷째, 사업비를 지원 받은 사회단체는 그 사업을 추진한 후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개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해야 한다.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다음해에는 더욱 많은 예산을 지원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사회단체의 중복가입을 지양해야 한다. 포천사회의 사회단체는 한 사람이 여러개 단체에 중복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중복가입이 많은 단체에는 지원금액을 최소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위에 제시한 사항을 참고하여 포천시 사회단체 보조금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절망이라지만 나는 희망이 보인다”

대진대학교에서 이명박 前서울시장 희망 강연회

대진대학교 제13대 총학생회는 11월22일 오후3시 학생회관 5층 대강당에서 이명박 前서울시장을 초청해 희망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에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내일의 희망이 있으면 오늘 어떤 고물이 있더라도 견딜 수 있다”며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극복하고 98명 근무하던 현대에 입사해 16만8천명이 근무할 때까지 전 세계를 누비며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서울시장에 취임한 다음날 공무원 몇 사람이 불투를 하나 건네며 서울시장 선거당시에 반대한 공무원들의 명단에 일어서 처리해달라고 주문한 적이 있었지만 불투를 열어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나중에 알아보니 그 불투 안에는 200명의 명단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사람들이 청계천 복원사업에 투입되어 청계천 복원 사업을 성공적인 사업으로 이끈 주인공들이라고 믿고 있다.

특히 이 전 시장은 청계천 복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4천200여회 주민접촉을 가졌고 22만명의 상인들과 일관된 정책으로 면담을 통해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시장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세계 어느 민족보다 우수하지만 리더십이 부족하다”며 “노무현 정부 이전에 우리나라 부채는 138조



대진대학교 제13대 총학생회는 11월22일 오후3시 학생회관 5층 대강당에서 이명박 前서울시장을 초청해 희망강연회를 개최했다.

원이 현재는 300조원을 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니까 실패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시장은 “서울시장으로 취임 당시 서울시 채무가 5조원이었던 것을 3조원을 갖고 2조원만 남겨놓았다”고 밝히고 “꿈을 갖고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강연에 앞서 이천시 대진대학교 총장은 “깨끗하고 강직한 이미지, 탁월한 행정가로 정계 전 복원사업의 역사를 이룩해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세계를 놀라게 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초청해 대진대학교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는 강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현대계열사 10개사 사장 및 회장, 제 14,15대 국회의원을 거쳐 제32대 서울특별시장을 지냈고 저서로는 ‘신화는 없다’, ‘절망이라지만 나는 희망이 보인다’, ‘청계천은 미래로 흐른다’ 등이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특별기획
올바른 민족공조

얼마 전 어느 모임에서 한 젊은이가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평통 회장님! 민족공조가 중요하니까 한·미 공조가 더 중요하니까?”

이에 대해 나는 “물론 한·미 공조보다 민족공조가 더 중요하지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지난 날 우리에게 고마운 나라였고 지금도 중요하고 필요한 나라임에는 틀림없으나 민족공조와 한·미 공조를 비교한다면 민족공조가 더욱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요. 그리고 한·미 공조가 민족이고 한겨레인데 더 말할 게 있었습니까?”라고 답했다.

그러자 그 젊은이는 “그렇다면 회장님은 옛날에 민주화 운동도 하셨으면서 왜 반북·친미를 주장하시는지요?”라고 물었다.

여기에 나는 이렇게 답했다. “나는 반북하는 것이 아니라 반독재하는 것입니다. 나는 학창시절과 80년대 군사독재시절 민권투쟁이나 민주화 운동에서 반독재·민주화 운동을 하던 때와 마찬가지로 남한의 유신독재나 군사독재보다 몇 십 배 더 나쁜 북한의 공산독재, 수령독재 체제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일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가혹한 인권유린, 개인숭배, 극단적인 굶주림에 대해 우리가 침묵한다면 우리는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족공조가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 실천에 있어서는 올바른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족공조의 기본은 북한 2300만 동포들과의 공조가 기본이어야 합니다.

즉 그들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고 사람 대접받고 살게 함을 민족공조의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압박하고 굶주리게 하고 권력 기반을 유지·강화하는데 열중하는 독재정권과 공조한다면 그런 공조는 공조가 아니라 민족에 대한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굶주림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적인가는 옛날에 이르



이종희 민족문제연구소소장

가를 “백성은 먹는 것으로 하늘을 삼는다”고 했고 간디는 “최악의 폭력은 굶주림이다”라고 했습니다.

북한 동포들이 지난 몇 년 사이에 300만 명이 이상이 굶어 죽었다는 사실은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금년 장마에도 북한 동포 5만 여명이 굶었다고 하는데 발표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마을에서 주민 20여명이 식중독에 걸려서 병원에도 입원만 해도 언론은 대서특필하는데 북한 동포 300만 명이 굶어 죽는 것에 대해서는 언론은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북한 동포들을 굶어 죽게 한 원인이 있습니다.

김정일 정권은 충분히 북한 주민들을 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천금보다 더 소중한 생명들을 죽게 만든 것입니다.

이런 무자비하고 무책임한 독재정권과 공조하는 것은 공조가 아니라 역사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독재 정권은 과거의 전두환·노태우 정권과 같이 민족법정에 세우고 심판해야 할 대상이지 협상이나 공조의 대상은 아닙니다.

민족공조는 당연히 이루어야 하지만 그 대상은 분명해야 합니다.

당연히 북한 동포들과 공조해야 하고 국민들을 아끼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정당인 우리 정부와 공조해야 합니다.

북한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핵무기가 아니라 김일체조나 동소령 같은 개혁적인 지도자입니다. 한·미공조도 마찬가지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나 공화당 정권과 공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열린 세계관을 가진 가치관과 공조하는 것이요 그런 가치관을 바탕으로 세워진 정부와 공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른 민족공조를 바탕으로 평화롭게 통일 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러나 통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 없는 통일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개성인삼조합장 김인수 후보 當選

3명 후보 경쟁 김 당선자 296표 획득



건강을 이유로 사임한 조남실 개성인삼조합장 후임 선거에서 김인수(55세·사진)씨가 당선됐다.

11월27일 실시된 개성인삼조합장 선거에는 김인수(인삼재배) 후보를 비롯해 유경종(60세) 前개성, 강화, 김포, 안성, 풍기인삼농협 전무, 이종석(47세) 前개성인삼농협 감사 등 3명이 각축을 벌여왔다.

이번 개성인삼조합장 선거에는 총 유권자 893명 가운데 669명이 투표에 참여해 74.9%의 투표율을 보였다.

개표결과 기호1번 김인수 후보는 296표를 얻어 기호2번 유경종 후보 179표, 기호3번 이종석 후보 192표를 얻는 2명의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됐다.

김인수 당선자는 선거공약으로 ▶경영의 합리화로 재정상태 신속 회복 ▶노사갈등 원인과 문제점 파악 및 무분규 조합운영 ▶영농 및 행정업무 최대화 분사 조합운영 투명화 ▶새로운 제품개발 판매망 확충으로 다가오는 수매물량 준비 ▶인삼공사와 상생의 길 복원 조합장 조합원 소득증대 ▶인삼도난 예방책 지속적 강구 ▶각 지역 인삼영농단체 및 작목반 육성활성화 ▶영농지도 확대강화 직원채용시 공채로 우수직원 확보 등을 내세웠다.

또 김 당선자는 소견발표에서 “혼신을 다하여 희망찬 조합으로 세워보겠다는 정열을 가지고 있으며 열심히 하면 된다는 신념에 차 있다”며 “인삼농사에 종사한지 30년 세월 동안 정열과 신념, 그리고 정직과 신용을 바탕으로 살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선수배님들의 고견과 경륜을 듣고 배워 조합운영에 활용하겠다”면서 “조합과 조합원의 두 수레바퀴가 튼튼하게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수 당선자의 주요 경력은 1950년생으로 금산고등학교와 제3사관학교 훈련 중 부상으로 중퇴했다. 또 개성인삼농협 이사와 경기도 농업인삼협동전위원회 운영 책임자, 경기도 인삼연구회 초대 및 2대 회장(2년), 농협대학 최고경영자 총동맹회 감사(현)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등록번호 경기 다 50007 2000. 8. 18 등록 **포천신문** http://www.ipcs21.com

발행처: (주)한국정보경기도 포천시 동교동 213-4 고은 B/D 구독료: 월 5,000원 / 년 50,000원 / 평생 500,000원

사훈: 주인의식(主人意識) 정론직필(正論直筆) 문화창달(文化暢達)

대표전화 (031)542-1507 발행인 겸 대표이사 최호열
광고전화 (031)542-1506 편집인 구봉주
광고접수 (031)542-9888 편집국장 김영복
구독신청 (031)542-9889 인쇄인 김규석
FAX (031)541-9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준수선언문리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언제나 바른 뉴스 **포천신문은 전국 최고의 지역신문**

www.ipcs21.com

포천신문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및 시사관련 사항을 포함한 포천시를 중심으로 인접된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의 시정(市政)을 해설·소개하고 시내(市内)의 각종 행사와 유명인사를 소개하며 주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생활정보를 수록,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정기구독 및 평생구독

정기구독 및 평생구독을 신청해 주신 애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6년 11월 20일부터 11월 29일까지) - 포천신문 임직원 올림 -

입금계좌 : 농협(585-02-172934)
예금주 : 최호열/포천신문

2000년 10월 25일 포천신문 제140호 발행(매창간호)	2002년 02월 09일 포천신문 제186호 발행	2003년 04월 10일 포천신문 제229호 발행	2004년 06월 30일 포천신문 제273호 발행	2005년 09월 30일 포천신문 제318호 발행
2000년 11월 06일 포천신문 제141호 발행	2002년 02월 20일 포천신문 제187호 발행	2003년 04월 19일 포천신문 제230호 발행	2004년 07월 10일 포천신문 제274호 발행	2005년 10월 11일 포천신문 제319호 발행
2000년 11월 20일 포천신문 제142호 발행	2002년 02월 28일 포천신문 제188호 발행	2003년 04월 30일 포천신문 제231호 발행	2004년 07월 20일 포천신문 제275호 발행	2005년 10월 20일 포천신문 제320호 발행
2000년 11월 30일 포천신문 제143호 발행	2002년 03월 09일 포천신문 제189호 발행	2003년 05월 10일 포천신문 제232호 발행	2004년 07월 31일 포천신문 제276호 발행	2005년 10월 31일 포천신문 제321호 발행
2000년 12월 11일 포천신문 제144호 발행	2002년 03월 20일 포천신문 제190호 발행	2003년 05월 20일 포천신문 제233호 발행	2004년 08월 10일 포천신문 제277호 발행	2005년 11월 10일 포천신문 제322호 발행
2000년 12월 20일 포천신문 제145호 발행	2002년 03월 30일 포천신문 제191호 발행	2003년 05월 31일 포천신문 제234호 발행	2004년 08월 20일 포천신문 제278호 발행	2005년 11월 20일 포천신문 제323호 발행
2001년 01월 01일 포천신문 제146호 발행	2002년 04월 10일 포천신문 제192호 발행	2003년 06월 10일 포천신문 제235호 발행	2004년 08월 31일 포천신문 제279호 발행	2005년 11월 30일 포천신문 제324호 발행
2001년 01월 10일 포천신문 제147호 발행	2002년 04월 20일 포천신문 제193호 발행	2003년 06월 20일 포천신문 제236호 발행	2004년 09월 10일 포천신문 제280호 발행	2005년 12월 10일 포천신문 제325호 발행
2001년 01월 20일 포천신문 제148호 발행	2002년 04월 30일 포천신문 제194호 발행	2003년 06월 30일 포천신문 제237호 발행	2004년 09월 20일 포천신문 제281호 발행	2005년 12월 20일 포천신문 제326호 발행
2001년 01월 30일 포천신문 제149호 발행	2002년 05월 10일 포천신문 제195호 발행	2003년 07월 10일 포천신문 제238호 발행	2004년 09월 30일 포천신문 제282호 발행	2006년 01월 02일 포천신문 제327호 발행
2001년 02월 10일 포천신문 제150호 발행	2002년 05월 18일 포천신문 제196호 발행	2003년 07월 19일 포천신문 제239호 발행	2004년 10월 09일 포천신문 제283호 발행	2006년 01월 09일 포천신문 제328호 발행
2001년 02월 20일 포천신문 제151호 발행	2002년 05월 25일 포천신문 제197호 발행	2003년 07월 31일 포천신문 제240호 발행	2004년 10월 20일 포천신문 제284호 발행	2006년 01월 20일 포천신문 제329호 발행
2001년 02월 28일 포천신문 제152호 발행	2002년 06월 07일 포천신문 제198호 발행	2003년 08월 09일 포천신문 제241호 발행	2004년 10월 31일 포천신문 제285호 발행	2006년 01월 31일 포천신문 제330호 발행
2001년 03월 10일 포천신문 제153호 발행	2002년 06월 15일 포천신문 제199호 발행	2003년 08월 20일 포천신문 제242호 발행	2004년 11월 10일 포천신문 제286호 발행	2006년 02월 10일 포천신문 제331호 발행
2001년 03월 20일 포천신문 제154호 발행	2002년 06월 20일 포천신문 제200호 발행	2003년 08월 30일 포천신문 제243호 발행	2004년 11월 20일 포천신문 제287호 발행	2006년 02월 20일 포천신문 제332호 발행
2001년 03월 30일 포천신문 제155호 발행	2002년 07월 02일 포천신문 제201호 발행	2003년 09월 09일 포천신문 제244호 발행	2004년 11월 30일 포천신문 제288호 발행	2006년 02월 28일 포천신문 제333호 발행
2001년 04월 10일 포천신문 제156호 발행	2002년 07월 10일 포천신문 제202호 발행	2003년 09월 20일 포천신문 제245호 발행	2004년 12월 10일 포천신문 제289호 발행	2006년 03월 10일 포천신문 제334호 발행
2001년 04월 20일 포천신문 제157호 발행	2002년 07월 20일 포천신문 제203호 발행	2003년 09월 30일 포천신문 제246호 발행	2004년 12월 20일 포천신문 제290호 발행	2006년 03월 20일 포천신문 제335호 발행
2001년 04월 30일 포천신문 제158호 발행	2002년 07월 30일 포천신문 제204호 발행	2003년 10월 11일 포천신문 제247호 발행	2005년 01월 01일 포천신문 제291호 발행	2006년 03월 31일 포천신문 제336호 발행
2001년 05월 10일 포천신문 제159호 발행	2002년 08월 10일 포천신문 제205호 발행	2003년 10월 20일 포천신문 제248호 발행	2005년 01월 10일 포천신문 제292호 발행	2006년 04월 01일 포천신문 제337호 발행
2001년 05월 19일 포천신문 제160호 발행	2002년 08월 20일 포천신문 제206호 발행	2003년 10월 31일 포천신문 제249호 발행	2005년 01월 20일 포천신문 제293호 발행	2006년 04월 10일 포천신문 제338호 발행
2001년 05월 30일 포천신문 제161호 발행	2002년 08월 30일 포천신문 제207호 발행	2003년 11월 01일 포천신문 제250호 발행	2005년 01월 31일 포천신문 제294호 발행	2006년 04월 20일 포천신문 제339호 발행
2001년 06월 09일 포천신문 제162호 발행	2002년 09월 01일 포천신문 제208호 발행	2003년 11월 10일 포천신문 제251호 발행	2005년 02월 11일 포천신문 제295호 발행	2006년 04월 29일 포천신문 제340호 발행
2001년 06월 20일 포천신문 제163호 발행	2002년 09월 10일 포천신문 제209호 발행	2003년 11월 20일 포천신문 제252호 발행	2005년 02월 21일 포천신문 제296호 발행	2006년 05월 10일 포천신문 제341호 발행
2001년 06월 30일 포천신문 제164호 발행	2002년 09월 18일 포천신문 제210호 발행	2003년 11월 29일 포천신문 제253호 발행	2005년 02월 28일 포천신문 제297호 발행	2006년 05월 20일 포천신문 제342호 발행
2001년 07월 10일 포천신문 제165호 발행	2002년 09월 30일 포천신문 제211호 발행	2003년 12월 10일 포천신문 제254호 발행	2005년 03월 01일 포천신문 제298호 발행	2006년 06월 01일 포천신문 제343호 발행
2001년 07월 20일 포천신문 제166호 발행	2002년 10월 10일 포천신문 제212호 발행	2003년 12월 20일 포천신문 제255호 발행	2005년 03월 11일 포천신문 제299호 발행	2006년 06월 10일 포천신문 제344호 발행
2001년 07월 30일 포천신문 제167호 발행	2002년 10월 20일 포천신문 제213호 발행	2004년 01월 01일 포천신문 제256호 발행	2005년 03월 21일 포천신문 제300호 발행	2006년 06월 20일 포천신문 제345호 발행
2001년 08월 10일 포천신문 제168호 발행	2002년 10월 30일 포천신문 제214호 발행	2004년 01월 10일 포천신문 제257호 발행	2005년 04월 01일 포천신문 제301호 발행	2006년 06월 30일 포천신문 제346호 발행
2001년 08월 20일 포천신문 제169호 발행	2002년 11월 01일 포천신문 제215호 발행	2004년 01월 20일 포천신문 제258호 발행	2005년 04월 11일 포천신문 제302호 발행	2006년 07월 10일 포천신문 제347호 발행
2001년 08월 30일 포천신문 제170호 발행	2002년 11월 10일 포천신문 제216호 발행	2004년 01월 31일 포천신문 제259호 발행	2005년 04월 21일 포천신문 제303호 발행	2006년 07월 20일 포천신문 제348호 발행
2001년 09월 10일 포천신문 제171호 발행	2002년 11월 20일 포천신문 제217호 발행	2004년 02월 10일 포천신문 제260호 발행	2005년 05월 01일 포천신문 제304호 발행	2006년 07월 31일 포천신문 제349호 발행
2001년 09월 20일 포천신문 제172호 발행	2002년 12월 01일 포천신문 제218호 발행	2004년 02월 20일 포천신문 제261호 발행	2005년 05월 11일 포천신문 제305호 발행	2006년 08월 10일 포천신문 제350호 발행
2001년 09월 29일 포천신문 제173호 발행	2002년 12월 10일 포천신문 제219호 발행	2004년 02월 28일 포천신문 제262호 발행	2005년 05월 21일 포천신문 제306호 발행	2006년 08월 20일 포천신문 제351호 발행
2001년 10월 10일 포천신문 제174호 발행	2002년 12월 20일 포천신문 제220호 발행	2004년 03월 01일 포천신문 제263호 발행	2005년 06월 01일 포천신문 제307호 발행	2006년 08월 31일 포천신문 제352호 발행
2001년 10월 20일 포천신문 제175호 발행	2003년 01월 10일 포천신문 제221호 발행	2004년 03월 10일 포천신문 제264호 발행	2005년 06월 11일 포천신문 제308호 발행	2006년 09월 10일 포천신문 제353호 발행
2001년 10월 30일 포천신문 제176호 발행	2003년 01월 20일 포천신문 제222호 발행	2004년 03월 20일 포천신문 제265호 발행	2005년 06월 21일 포천신문 제309호 발행	2006년 09월 20일 포천신문 제354호 발행
2001년 11월 10일 포천신문 제177호 발행	2003년 01월 30일 포천신문 제223호 발행	2004년 03월 31일 포천신문 제266호 발행	2005년 07월 01일 포천신문 제310호 발행	2006년 09월 30일 포천신문 제355호 발행
2001년 11월 20일 포천신문 제178호 발행	2003년 02월 10일 포천신문 제224호 발행	2004년 04월 01일 포천신문 제267호 발행	2005년 07월 11일 포천신문 제311호 발행	2006년 10월 10일 포천신문 제356호 발행
2001년 11월 30일 포천신문 제179호 발행	2003년 02월 20일 포천신문 제225호 발행	2004년 04월 10일 포천신문 제268호 발행	2005년 07월 21일 포천신문 제312호 발행	2006년 10월 20일 포천신문 제357호 발행
2001년 12월 10일 포천신문 제180호 발행	2003년 02월 28일 포천신문 제226호 발행	2004년 04월 20일 포천신문 제269호 발행	2005년 08월 01일 포천신문 제313호 발행	2006년 10월 30일 포천신문 제358호 발행
2001년 12월 20일 포천신문 제181호 발행	2003년 03월 10일 포천신문 제227호 발행	2004년 05월 01일 포천신문 제270호 발행	2005년 08월 11일 포천신문 제314호 발행	2006년 11월 10일 포천신문 제359호 발행
2002년 01월 01일 포천신문 제182호 발행	2003년 03월 20일 포천신문 제228호 발행	2004년 05월 10일 포천신문 제271호 발행	2005년 08월 21일 포천신문 제315호 발행	2006년 11월 20일 포천신문 제360호 발행
2002년 01월 10일 포천신문 제183호 발행	2003년 03월 31일 포천신문 제229호 발행	2004년 05월 20일 포천신문 제272호 발행	2005년 09월 01일 포천신문 제316호 발행	2006년 11월 30일 포천신문 제361호 발행
2002년 01월 19일 포천신문 제184호 발행	2003년 04월 10일 포천신문 제230호 발행	2004년 06월 01일 포천신문 제273호 발행	2005년 09월 11일 포천신문 제317호 발행	2006년 12월 11일 포천신문 제362호 발행